18세기 조선 르네상스 이끈 혁신가들의 삶과 역사

문화혁신의 상징 수원 화성은
정조·채제공·정약용 협력 프로젝트
조선 후기 주도한 3명 인물로 본
당시의 정치·사회·문화상 조명

정조시대 정치혁신의 발판이 됐던 규장각. 김홍도 작(1776)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정조와 채제공, 그리고 정약용

박영규 지음

'18세기 조선 르네상스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다.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다. 바로 정조, 채제공, 정약용을 일컫는다. 정조는 조선시대 문화정치를 꽃 피운 군주였으며 채제공은 그의 혁신정치를 보좌한 정승이었다. 정약용은 누구나 인정하는 당대의 대표 실학자였다.

조선시대에는 두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15세기 세종이 일군 한글창제와 과학문명이 하나이고, 정조가 이끌었던 18세기 문화 영역의 토대 확장이 또 다른 하나다.

그 가운데 정조 때의 르네상스는 과감한 사회 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희구하는 신진 학자들을 등용해 사회혁신을 추진했다. 오랑캐문화로 치부하던 청나라 문명에 대한 인식 전환은 서양 문물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세 명의 인물을 토대로 당대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실록사가", "역사 대중화의 기수"라 불리는 역사 저술가 박영규의 유려한 필치와 독특한 시각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저자는 시대를 주도한 세 인물을 축으로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상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수원 화성은 정조와 채제공, 정약용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프로젝트다. 〈문화재청 제공〉

무엇보다 저자는 개인적 삶과 업적에 치중하기보다 세 인물의 교류와 다채로운 면모에 초점을 맞춘다. 눈에 띄는 점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요소도 숨기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속한 정치 집단,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인식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저자는 정조는 논리적이고 차분했으나 한편으로 의심이 많고 독단적이었다고 규정한다. 정조의 이런 이중성은 어린 시절 겪은 아버지의 죽음과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순종적이었던 어린 정조의 내면에는 분노와 생존에 두려움이 자리했을 거라는 얘기다. 이러한 면은 호학군주인 동시에 모략과 뒷거래에 능한 정치꾼의 면모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채제공은 정조에게 조정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탕평책을 역설했던 인물이다. 이를 위해 평생 과업인 남인 부흥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반발은 물론 파직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그는 정조가 꿈꾼 세상의 토대를 닦기 위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정조는 밀찰을 통한 막후정치로 조정의 판을 기획했다. 붕당의 핵심 세력에게 편지를 보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이른바 막후정치를 폈다. 노론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350여 통의 편지에는 그의 속내가 담겨 있다. 사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보낸 밀찰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정치의 왜곡을 부르는 행태였다.

정약용은 다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강진으로 유배를 오기 전에는 위대한 학자라기보다 소장학자에 머물렀다. 남인 출신이었던 그는 정치 입문 때부터 당쟁에 휘말렸는데 형과 사촌, 매형을 비롯해 천주교 친지들 탓에 늘 입지가 불안했다. 그러나 정조와 채제공의 후원 아래 실약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 트로이카의 협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프로젝트가 수원 화성이다.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새 정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혁신의 상징이었다. 화성 기획은 정조가 했지만 축성과 관리는 채제공이 총괄했다. 설계도 작성 등 실질적인 건축 작업은 정약용이 실행했다.

저자는 18세기 정조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평한다. 꽃망울은 터뜨렸으나 열매를 맺지 못해 미래를 위한 씨를 생산하지 못한 시대라고. "즉, 정조는 현실은 가꾸었으되 미래는 열지 못한 미완의 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조가 일구고 가꾼 문화혁신의 꽃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김영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시에 살기 위해… 메노 스힐트하위전 지음·제효영 옮김

인구 과잉 시대가 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거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지금까지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예측은 빗나간 면이 없지 않다. 청정구역이 아닌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자연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생활자가 된 동식물의 진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네덜란드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메노 스힐트하위전이 펴낸 '도시에 살기 위해 진화 중입니다'는 인간과 자연이 독특한 하모니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다. 자연에 관해 논할 때 보통 '인간' 혹은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한 청정하고 고유한 환경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 예로 개미의 생태를 거론하며, 개미는 환경에서 얻은 물질로 집을 짓는데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개미사회가 커질수록 해당 지역에는 변화가 생기고 주위에 살던 다른 곤충들 또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생존기술을 익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개미사회나 먹이사슬 전체에서 개미의 역할은 수용하면서 인간의 활동은 자연을 파괴하고 먹이사슬을 훼손한다고 여긴다.

저자는 인간이 '도시 생활자로서의 자연'을 이해하고 공생하려면 이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일본의 자연 복원 사업의 일부인 도시 농업에는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암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분홍의 시작 남길순 지음

"다만 떠도는 말은 색을 얻지 못하고 직언은 돌아오지 않는다. 숨기고 싶던 분홍이 당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다. 분홍은 1그램의 수치(羞恥) 1그램의 당위 그것이 모자란 여름이 간당간당하다."

순천 출신 남길순 시인이 펴낸 '분홍의 시작'은 존재의 깊이와 삶의 문제를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본 시집이다. '달리기 새', '마네킹 아이', '생강나무 숲', '백야', '귓밥 파는 밤' 등 모두 60여 편의 시들은 특유의 감수성과 함축적인 시어들로 울림을 준다.

"숲은/ 어린 나의 무대/ 바위 속에 집을 그리면/ 입속에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살아난다/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곳엔 복숭아밭이 있었고/ 아버지는/ 담장 위에 더 높은 담을 쌓고/ 복숭아 속에/ 벌레들을 길렀어/ 꽃은/ 나무의 겨드랑이에 고여 있던 물이 피어오른 거야,/ 향기는 나무들의 숨 냄새…"('분홍의 시작' 중에서)

표제시 '분홍의 시작'은 보편적인 분홍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분홍이 표상하는 세계는 이경수 평론가의 표현대로 "분홍은 '나'의 기원이면서 동시에 벗어나야 할 감옥"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벌레마저 품고 살아 있는 생명의 절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경수 평론가는 "무릉도원보다 더 먼저 있었던 복숭아밭에서 분홍의 연원을 찾는 이 시는 "분홍의 시작"을 통해 결국 여성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남길순 시인은 순천대 대학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으며 2012년 '시로 여는 세상'을 통해 등단했다.

〈파란·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윤찬영 지음

지난 한 해 동안 6개 대륙, 42개 나라에서 모두 239차례에 걸쳐 'BFFP'(Break Free From Plastic)라는 행사가 열렸다. '플라스틱에서 벗어나자'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만 명은 18만7851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았다. 가장 많이 버려진 브랜드는 코카콜라로 모두 9216개에 달했다. 뒤를 이은 건 펩시와 네슬레였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순위 3~5위였던 네슬레, 글로벌 식품기업 다농, 제과업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의 포장을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창영씨의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는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30가지 사회 혁신 실험을 심도 깊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 혁신'의 다양한 길과 방법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나아갈 좌표를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 재생 가상화폐 '줄리엣', 마을의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를 잇는 도시 광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혈액 공급 체계를 세워 수많은 생명을 살린 드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사회 혁신'이라는 흐름으로 모아지고 있다

1장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에서는 죽은 항구도시에 환경 유토피아를 건설한 네덜란드 데 퀘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공유주차제로 대체한 독산4동, 웨이스티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끼리 사귀고 배워 가면서 쓰레기를 절감한 암스테르담 사례 등 주민 참여의 여러 모습을 다양하게 짚어본다. 3장에서는 기술이 사회 혁신에 참여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장 '디지털 사회 혁신, 참여와 협력의 기준을 바꾸다', 부록 '유럽의 사회 혁신 소개'도 있다.

〈바틀비·1만59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 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7(일) ~ 21(목)
• 전 형 일: 2019. 2. 22(금)

대학원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 형 일: 2019. 2. 22(금)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